

월간 내일

July 2025
Vol.602



배우 김지연



CONTENTS

더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
신중함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08

다짜고짜 설문
나는 신중한 직장인일까?

10

일잘러를 만나다
근로 의지는 높이고, 조직 활력은 더하고 상생 일터를 실현하다
(주)제이트로닉스

16

내일 인터뷰
신중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배우 김지연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20

MOEL 아카이브
“31도를 넘기면 멈춰라”

24

굿 파트너
불법은 교묘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천북부노동지청 박태용 근로감독관

28

체인지업! MOEL
① 고용노동부 2025년 2차 추경안 발표
②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 취업준비생 위한 공간으로 ‘변신’

32

함께 하는 MOEL
평범하지만 빛나는 하루, 다시 시작되다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참여 수기 대상 최윤희 씨

36

내일 로그
물속 탐사와 작업에 효율과 안전을 더하다
수중 드론 조종사

38

어땠을까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보여주는
‘직장 내 괴롭힘’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40

MOEL 뉴스

44

아보하 스포츠
호수에 머문 한여름의 숨결
석촌호수에서 여름나기

48

내일 톨
• 신중함의 가치
• 일상을 지키는 루틴

50

취향시대
무미건조한 키보드의 개성 넘치는 변신
기계식 키보드

52

직장인 어휘 캘린더
직장인 어휘 사전 신조어 개정판

54

내일 모의고사

July 2025 Vol. 602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신중함, 일의 깊이를 더하는 태도

일터에서의 신중함은 단순한 ‘느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실수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09년, 뉴욕 허드슨강에 비상착수한

‘US 에어 1549편’은 신중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는 두 엔진이 모두 멈춘

위기 속에서도 관제탑 유도보다 착수 결정을 내렸고,

155명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반복 훈련이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애틀 중앙 도서관은 설계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설계를 조정했습니다.

램 콜하스는 책 한 권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동선 설계를 제시했고, 이 도서관은 사용자 경험 중심의
공공 건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중한 과정이 도시의 명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중함은 망설임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집중력이자 지혜입니다.

나는 신중한 직장인일까?

업무 스타일로 알아보는 신중함 레벨 테스트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신중함'은 조직에서의 신뢰와 실력을 쌓는 중요한 자질이다. 이 테스트는 당신의 업무 태도 속에 숨어 있는 '신중함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자가 진단 도구이다. 지금 내 업무 스타일을 점검해 보고, 더 나은 일하는 방식을 설계해 보자.
글 편집실

응답 방식

각 문항에 대해 아래 5점 척도로 응답하세요.

• 1점 전혀 아니다 • 2점 아니다 • 3점 보통이다 • 4점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테스트 문항(총 12개)

- 1 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일정과 우선순위를 계획한다.
- 2 보고서나 이메일을 보낼 때 항상 내용을 한 번 이상 재검토한다.
- 3 회의나 발표를 위해 충분한 사전 자료 조사와 정리를 한다.
- 4 갑작스런 업무 요청이 들어와도 성급히 시작하지 않고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 5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체크리스트나 메모 등을 활용한다.
- 6 업무 중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보다 먼저 분석하려 한다.
- 7 협업 중 의견 충돌이 생기면 감정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접근하려 한다.
- 8 다른 팀원과 약속한 기한은 철저히 지키려 노력한다.
- 9 내가 전달하는 정보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신경 쓴다.
- 10 나의 결정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 종종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다.
- 11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기 전에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려 한다.
- 12 평소 실수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나 틀을 찾아본다.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범주에 따라 자신의 신중함 수준을 확인하세요.

1~27점 즉흥 실행형

직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빠른 판단력은 강점이지만, 실수나 반복 업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8~43점 실용 균형형

상황에 따라 신중함과 속도를 조율할 줄 아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입니다.

44~60점 철저 계획형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업무 스타일로 실수가 적고 신뢰받는 편입니다. 다만 속도감과 융통성을 의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중함과 속도 중 나는 [] 을/를 택한다!

나는 [신중함]을 택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속도를 중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허점이 생기거나 관련 부서나 동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느릿느릿해서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곤란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다'는 말처럼 신중함은 우리가 맡은 일을 더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결국 한순간의 선택이 오랜 시간의 결과를 바꾸듯, 신중함은 조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김건우 씨

저는 [신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으로 일하다 보니, 무엇보다 신중함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웠고, 실제로 몇 차례 아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전현주 씨

지금은 [속도]가 먼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몇 년간 열심히 달려온 만큼 이번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해요. 시험을 풀다 보면 늘 시간에 쫓기지만, 그동안 노트 정리도 꼼꼼히 하고 피드백도 성실히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신중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문제를 읽는 순간 빠르게 답을 떠올릴 수 있는 '속도'가 더 중요해졌어요. 신중함 위에 속도를 더하는 게 이번 시험의 열쇠인 것 같아요.

부산시 해운대구
김민주 씨



8월호에서 함께 나눌 감각은 '섬세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결을 읽어내고,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섬세함의 힘을 조명합니다. 작지만 깊은 감각, 그 정교함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에 주목해 봅니다. QR 코드를 스캔해 설문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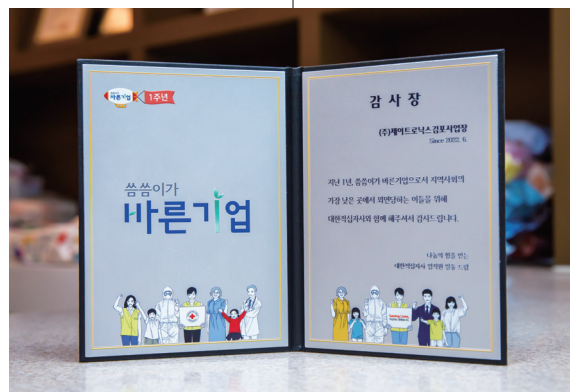


근로 의지는 높이고, 조직 활력은 더하고 상생 일터를 실현하다

(주)제이트로닉스

제이트로닉스가 그리는 미래는 분명하다.
‘사람을 통한, 사람을 위한’ 성장을 이끄는 것.
이를 위해서는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했고,
인사관리와 조직문화의 면면을 바꾸기 시작했다.
현장에 최적화된 개선 ‘지점’을 설정하고, 회사와 직원의
‘교점’을 만들며 일터혁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글 김주희 사진 김경수



‘안전’하게 ‘오래’ 일하는 산업현장

제조업에서 생산역량과 인재관리는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적절한 인재채용과 인력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야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제조기업이 인사관리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제이트로닉스 또한 사람 중심의 성장을 꾀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제이트로닉스는 전자부품 소재 업계에서 쌓은 탄탄한 업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 반도체 사업으로 출발한 이후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분야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철저한 품질경영 시스템과 윤리적 경영 실천을 통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나서며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하는 중이다.

“설비 증설과 수출 안정을 통해 생산량을 향상시킨 반면, 인적자원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높이는 데는 다소 소홀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HR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고용노동부에서 일터혁신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양진하 부사장은 이계연 컨설턴트와 함께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갔다. 핵심 키워드는 ‘예방’이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에 맞춰 전사

MINI INTERVIEW



이정호 사장

“저희는 ‘인재는 핵심 자산’이라는 철학으로 채용부터 육성까지 인적자원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심리학 기반의 조직문화를 확산하며, 구성원이 스스로 참여하고 변화를 이끄는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양진하 부사장

“직무가치 기반 보상체계 도입으로 작업 몰입도가 높아졌고, 이는 수율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는 물론 삶에서도 행복과 성공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마스크사업부 품질팀 이효중 과장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배려하는 자세는 곧 업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배운 내용을 동료들과 나누며 더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위험인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후 바닥 평탄화 작업부터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색 작업, 원바디차량 충돌 위험 방지 센서 부착 등을 진행했다.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현장을 모니터링·보완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업무 몰입을 이끄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우수 인재 채용과 근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MZ세대의 경우 공정한 보상에 대한 니즈가 높은 터. 젊고 유능한 인재채용과 유지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승진·보상·교육체계가 절실했다. 기존 임금체계의 경우 연공서열 임금제 성격이 짙었는데, 이는 근속 연수를 중심으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 한계로 작용했다.

“직무급 기반의 임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고난도 작업자의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정성과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한 평가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았는데, 직무가치에 따른 행동지표를 수립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코칭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혁신의 습관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제이트로닉스의 대표 제품인 멀티슈는 화장품 인증에 해당하는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평소 매우 높은 수준의 작업환경 및 공정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소한 불량과 오류만으로도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 작업자의 업무 몰입도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만큼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급선무였다. 구성원들의 인식과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긍정심리학

교육을 시행했다.

3달에 걸쳐 10번의 워크숍을 열었는데, 각 부서의 대표 직원이 교육에 참여한 뒤 전 직원에게 긍정 마인드와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이어갔다. 교육은 단순 이론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긍정 확인, 창조적 시각화를 통한 행동변화, 인생 목표 설정 등을 평소 습관화하는 훈련을 진행하며 구성원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인 업무 자세가 만연한 조직에 반전이 찾아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더욱 친척적인 자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개인의 고민으로





이어졌고, 장기적으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사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

명확한 목표 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컨설팅은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사실 컨설팅 시작 당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업무 처리만으로도 바쁘는데 회의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태며 혁신을 꾀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현장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고난도 직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한층 유연해졌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긍정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협업도 한결 수월해지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살아 숨 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계연 컨설턴트는 성공적인 일터혁신의 비결로 임원진과 구성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손꼽았다. 기업은 직원과의 상생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기꺼이 투입했고,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했다. “노사의 혁신 의지가 강할 때 비로소 조직이 변화합니다. 간혹 컨설팅 결과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채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이트로닉스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컨설팅이 현장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노동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도 변화하고 있다. 이를 재빨리 캐치하고 변화의

노선에 올라탈 때, 기업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양진하 부사장은 노사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미래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일터혁신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량 기반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은 구성원의 참여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구성원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는 자율적 혁신 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협업이 살아 있는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중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걸그룹 우주소녀로 데뷔해 배우로 성장한 김지연(보나).
그녀에게 '신중함'은 망설임이 아닌 꾸준함의 다른 이름이다.
선택에는 조심스럽지만, 결정 후에는 우직하게 나아간다.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SBS

꾸준한 발걸음, 선택의 힘

'신중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의 의미로 '매우 조심스럽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해나가며 자신과 주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천천히 일을 해나간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룹 우주소녀의 멤버로 배우로도 거듭나고 있는 김지연(보나)에게 이 '신중'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조심스럽되, 그 결정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의지를 상징한다.

2016년 2월 우주소녀로 데뷔한 김지연은 바로 이듬해 KBS2 드라마 '최고의 한방'으로 배우로서의 경력도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비교적 조연의 역할로 출연했던 2017년 두 작품, 2018년 두 작품을 제외하면 그는 꼬박꼬박 1년에 한 작품씩을 소화했다는 점이다.

2021년 막을 내린 KBS2 '오! 삼광빌라'를 시작으로 2022년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2023년 MBC '조선변호사', 2024년 티빙의 '피라미드 게임'에 이어 올해는 SBS 드라마 '귀공'에 출연했다. 섭외가 많다고 해서 거침없이 몸을 내맡기

는 스타일도, 그렇다고 작품을 쉬는 모습도 아니다. 신중하게 골랐다면 우직하게 밀고 간다.

"지금까지 세어보니 10년 동안 드라마를 9개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가수로서 앨범도 10개를 냈습니다. 안 쉬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뷔 당시에는 20대 초반이라, 지금 나이와 비슷한 30대가 되면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웃음)"

'귀공'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도전

그는 최근 SBS의 드라마 '귀공'을 마쳤다. '귀공'은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를 배경으로 악신인 이무기가 빙의한 도령과 무녀 사이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다. 김지연은 이 작품에서 여러 역할을 연기했다. 그에게는 '조선변호사' 이후 두 번째로 도전하는 사극연기였고, 무속신앙을 소재로 하고 무녀로 등장한 첫 번째 작품이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설정과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만일에 그가 나라면'이라는 생각으로 대입할 수 있는 인물을 연기했죠. 그런데 원래 판타지를 좋아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저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빼고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무녀’라는 직업은 지금도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뿐더러, 모습이나 행동양식을 재현하기도 쉽지 않은 캐릭터였다. 일단 무녀를 하겠다고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했다면, 김지연에게는 우직하게 달려가는 일만이 남았다. 그는 무녀가 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을 만나고 각고의 노력을 했다.

“완전한 무녀의 모습은 아니지만, 애초에 판타지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저희 드라마에는 무속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이분들에게 여러 자문을 받았어요. 특히 일종의 주문이라고 불리는 ‘독경’이 힘들었는데,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 잘 안 외워졌어요. 어쩔 수 없이 두세 달 동안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침대나 TV 심지어는 핸드폰에도 받아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외웠어요.”

중간에 여리가 굶을 하는 장면은 두 달 동안 한국무용을 미리 배워두고 응용했다.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막상 촬영현장은 만만치 않았다.

“‘화덕차사’라 불리는 신이 빙의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저는 누군가가 빙의해 들어온 연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해 큰 숙제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리의 몸에 목소리는 남자니까요. 한이 맺힌 귀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진정성 있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목소리 자체보다는 그 감정에서 압력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솔직함과 균형감, 김지연의 가치관

이렇게 김지연이 큰 도전이든 작은 도전이든 새롭게 일을 하는데도 갖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속이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었다. 그는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편이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 이것이 설사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해도 솔직하지 못한 것은 싫어한다. 정의와 신뢰를 가장 큰 가치에 두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뒤흔친 자신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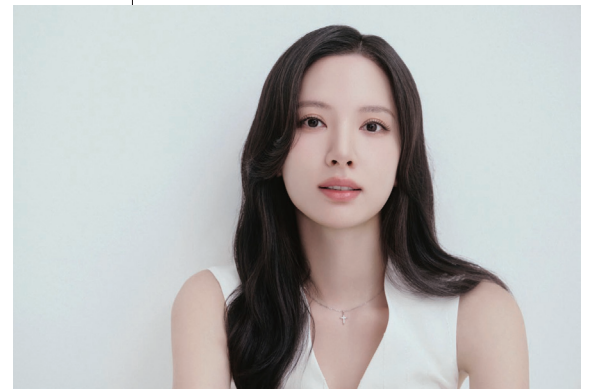
“어떤 자리에서도 마음에 없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기보단,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싶어요. 거짓말도 피하고 싶고요. 말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걸 보며,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드라마 10편, 음반 10장은 많은 수치지만, 1년에 여러 작품을 소화하는 이들에 비하면 오히려 규칙적인 편이다. 그 속에도 김지연의 신중함은 담겨 있다. 배우나 가수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지키려 한다. 그런 균형감으로 10년 가까운 연예계 생활을 묵묵히 이어왔다.

“작품을 준비할 때마다 한계를 넘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귀궁’도 잘 해내고 싶었고요. 체력이 나 마음이 힘들어도, 신중히 쌓아온 선택들이 결과로 이어질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지금도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히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배우로서의 성장

김지연이 이번 작품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장르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장르가 다 어울리고,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길 원한다. 사실 지금까지 김지연의 배역은 실제 있을 법한 사람이 실제 일어날 법한 일에 빠져드는 역할이었다. 청춘의 열정과 충동을 대변했던 ‘란제리 소녀시대’의 이정희, 철이 없고 잘 당한 하지만 사랑스러웠던 ‘오! 삼광빌라’의 이해든, 도도하고 묵묵한 성격의 펜싱선수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고유림, 나라를 위해 복수에 나선 ‘조선변호사’의 이연주, 서열로 인해 피라미드를 만드는 학교의 부조리를 깨려 했던 ‘피



라미드 게임’의 성수지 등이 모두 그랬다.

“고유림을 기점으로 제 모습과 닮은 캐릭터를 찾으려 했어요. 연기는 제 안에서 꺼내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귀궁’을 계기로, 나와 달라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딱 그런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새로운 느낌을 보여드리는 것이 앞으로 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캐릭터를 꺼내는 일도 신중함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 행보의 한계를 알고 새롭게 방향을 트는 것 또한 신중함의 산물이다. 이렇게 김지연은 10년을 아이돌 연기자라는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다져왔다. 그가 보여줄 신중함의 산물은 또 어떤 것이 될까. 우리는 또 그의 연기를 보며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 김지연의 신중함은 그의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믿음’의 다른 이름이 됐다.

“월간 내일 독자 여러분, ‘귀궁’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에너지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웃음과 감동을 모두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1도를 넘기면 멈춰라"

폭염 속 노동자 지키는 124일간의 특별 대응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건설·조선·물류업종 등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폭염 대응 '특별대책반' 가동 자율 개선 → 현장 점검 → 업정 감독 3단계 전략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실제 통계에서도 심각성이 확인된다. 지난해에는 63명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해, 2018년(65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50대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옥외작업 밀집 업종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6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업장 스스로 예방 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❶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❷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❸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냉방·통풍장치 가동,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	31도 이상 작업 시 적절한 휴식,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
보냉장구	냉각조끼 등 체온 조절 장구 지급
응급조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엔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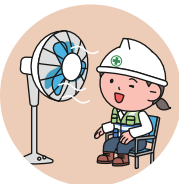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 지급



- 바람, 그늘**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선풍기) 설치
 작업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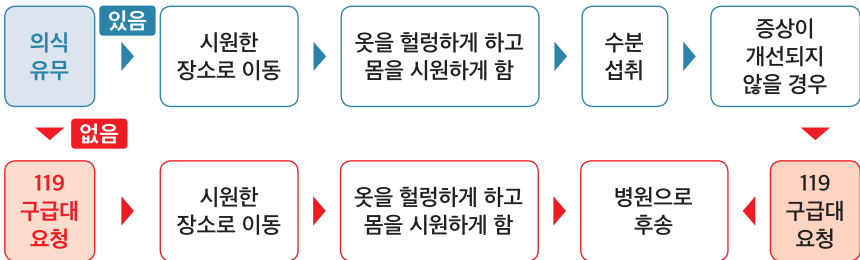
-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혈압, 고혈당·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옷을 헐겁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시거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불법은 교묘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 꺼진 사업장, 흔적 없는 사장, 밀린 임금, 억울한 근로자.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는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사건들에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끝까지 파고들었다.
“이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라는 그의 말속에는 무수한 밤과 분투의 기록이 담겨 있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평범했던 공시생, 악자의 손을 잡다

현재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인천북부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수사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보 사건과 특이 민원 대응도 수석수사팀의 업무이다.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청 내 직장협의회 회장, 스포츠 동호회 회장, 학습조직 리더 등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2019년 근로감독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원래는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평범한 ‘공시생’이었지만, 막연했던 미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업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7년, 증원 소식과 함께였다. 그는 우연히 근로감독관 인터뷰 기사를 접했다. “일은 고되지만, 보람이 크다”라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학창 시절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했던 경험들, 그리

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를 이끌었다. 그렇게 그의 목표는 ‘근로감독관’으로 선포되었고, 그 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사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2024년, 선망했던 ‘올해의 근로감독관상’을 직접 받게 되었을 때, 그의 헌신은 큰 영광으로 돌아왔다.

악의적 체불, 외면할 수 없는 현실

그의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청소업체 대표를 구속했던 일이다. ‘청소 현장의 임금

2024
올해의
근로감독관

인천북부노동지청
박태용 근로감독관



체불 정황이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이라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직권 조사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통신 영장을 통한 통화 기지국 분석, 계좌 압수 영장을 통한 자금의 흐름 추적까지... 사안의 중대성과 악의성을 밝혀내기 위한 그의 수사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대지급금은 어려운 시기, 근로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런데 이를 사업 수익의 극대화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실망과 함께 마음이 무거워졌다. “체불을 전략처럼 쓰는 인식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임금, 퇴직금 등 약 6,20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를 직접 잠복하여 검거하기도 했다. “노동법이 뭐냐, 벌금 한번 내면 그만 아니냐”며 출석조차 거부하던 사업주. 당시 그의 핸드폰에 녹음된 대화는 이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사업주의 치밀한 재산 은닉, 아들 명의 계좌 사용 등 꼬리를 감추려는 시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구속 수사를 이끌어냈다.

갈등의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상당수의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깊은 감정의 골에서 비롯된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억울함이 뒤얽힌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은 중립을 지키면서도 양측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수사라기보다는,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로를 거짓말쟁이라 여기는 감정이 얹힌 대질 조사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은 객관성을 잃



지 않으면서도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판례,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에 앞서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물론 현장은 늘 예측 불가능하다. 대질 조사 중 민원인이 갑자기 커터 나이프를 꺼내거나, 신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업주, 조사 중 주먹다짐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업장 내 폭행 사건까지. 극단적인 상황들도 마주해야 했다.

“한번은 민원인이 책상에 있던 커터 나이프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 사무용품은 민원인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죠.” 그의 담담한 설명 뒤에는 아찔했던 순간들이 숨어 있다. 그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풀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은 살아 움직여야 하기에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악의적인 체불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이 뒤따르게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그런 사업주들은 대부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도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벌금 몇 번으로 끝나고, 반복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벌금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의 말에서 약자를 향한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그의 사무실 책상 앞에는 늘 같은 문구가 걸려 있다. ‘국가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근로감독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dead letter)에 불과할 뿐이다.’ 이 글귀는 그



누군가의 억울함을 제가 대신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근로감독관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에게 매일의 동기가 된다.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현실이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의 마지막 말에서, 약자의 곁을 지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노동 존중,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한다

2025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결국 사람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로 귀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2차 추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민생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35조 3,452억 원)과 1차 추경(35조 6,255억 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총 37조 2,092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에 방점을 찍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652억 원, 내일배움카드에는 160억 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는 258억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고용 환경에 발맞춰,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2025년 고용노동부 2차 추경 세부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2025년	
	본예산	2차추경(순증)
① 고용안전망 강화		
구직급여	109,171	+12,929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	+1,652
②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내일배움카드(일반)	5,802	+160
취약계층 취업촉진	92	+2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192	+101
③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		
체불청산지원용자	704	+8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8	+128
진폐위로금	837	+45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8,851	+25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818	+150

고용노동부 2025년 2차 추경안 발표



“이번 추경은 민생의 빈틈을 메우고,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최영범 과장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Q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이슈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2차 추경은 두 가지 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고용안전망 보강이고, 둘째는 청년 일자리 확대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자 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계절적 요인(폭염 등)도 고려해 민생 회복과 노동자의 작업 환경 보호 역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Q 이번 추경은 기존 본예산이나 1차 추경과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1차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발 재난 대응에 초점이 있었고, 민생 지원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보다 명확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Q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나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6만 명), 일반고 3학년 대상 직업훈련(1,820명), 지역 특화 취업박람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8,500명 추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체불청산지원용자 확대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지원을 받으면서 취업 상담과 훈련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구직 초기 청년층에 실효성이 높고, 내일배움카드는 신산업·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진폐위로금, 취약계층 취업촉진 등은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근로자, 산재 고령 노동자 등 실제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Q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절실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 위한 공간으로 '변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지원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발길을 옮겨보자!

글 편집실 사진 박충렬

step.1 서울고용복지+센터 둘러보기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소속 101개 센터를 대표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다.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울센터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층에는 통합 안내 창구를 중심으로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조성된 '청년ON 라운지'에서는 청년들이 직업훈련 과정 탐색,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유 학습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독립형 상담실과 직업훈련탐색존 등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step.2 취업 준비 플랫폼 100% 활용하기

매주 수요일, 현직자가 들려주는
리얼 취업 스토리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주요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일자리 토크!!' 청년 취업 콘서트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라운지



AI 면접실



상담실



프로그램룸

하나은행, CJ올리브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넷마블, 구글코리아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이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채용 정보와 직무 노하우를 제공한다.

생성형 AI가 도와주는 '자소서 첨삭'과 '진로 설계'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로설계, 자기소개서 코칭, 모의면접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24' 플랫폼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AI 기반의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광역 일자리 수요데이 & 맞춤형 특강, 센터는 지금 진화 중

서울 전역의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눈길을 끈다. 구직자-기업 매칭을 주선하고, 지역별 채용 수요를 연결한다. 여기에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 모성보호제도, 청년 금융특강, 주거정책 설명회 같은 생활 밀착형 복합 서비스까지 강화되고 있다.



김옥주 취업지원총괄과 파트장

공간, 콘텐츠,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청년 취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주거 상담, 일경험 상담은 물론, 7월에는 1:1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8월에는 전문가 초청 모의면접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 공간·행사 공간·스터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열린 공간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빛나는 하루, 다시 시작되다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참여 수기 대상 최윤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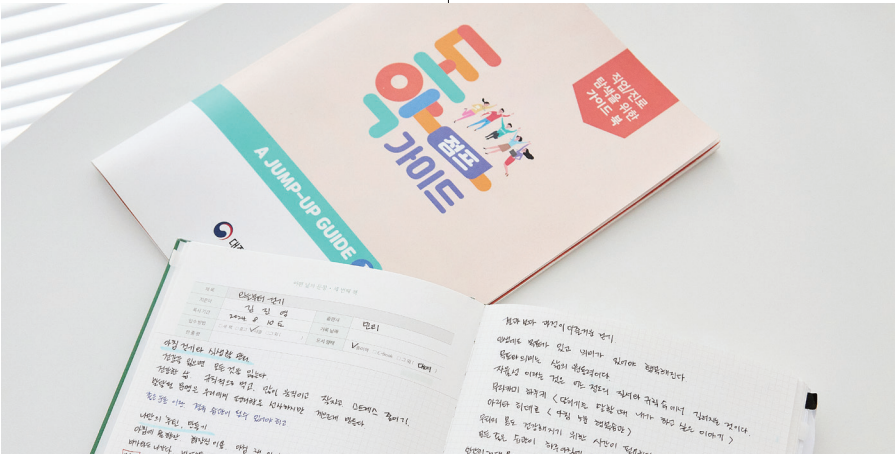
누구나 삶이 잠시 멈추는 때가 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있어 준다면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최윤희 씨가 불안을 넘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도약보장 패키지’가 있었다.

글 차유미 사진 김규남

“요즘, 하루가 참 조용하고 단단해요”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면, 최윤희 씨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과 후 아이들이 돌봄센터에 도착하면 그녀는 하나하나 맞춤형이며 아이들을 맞이한다. 숙제를 봐주고, 그림을 그리고, 다툼을 중재하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 하루하루 반복되지만, 그녀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말한다.
“바쁘긴 해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고맙습니다.”
퇴근 후엔 책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주말이면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에서 열리는 좋은 강연을 찾아 듣고, 영상 편집 수업도 빼놓지 않는

다. 그렇게 배운 것들은 블로그에 차곡차곡 정리된다. 처음엔 개인 기록이었지만, 지금은 지역 시민체험단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눈다.
“아이들과 나누는 일상 그리고 글을 쓰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제 미약한 글이 소비자나 사회적기업엔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리고 있다는 그녀의 눈은 빛났고, 목소리와 마음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잔잔해진 바다처럼 예전의 불안함 대신 평화와 안정감이 자리 잡은 일상이 그녀에게 다시 시작됐다.





**“일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10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교재를 만들고, 행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계획을 다듬으며 보낸 시간이 전부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원아 수가 급감했고, 결국 직장을 잃었고 그간의 정성과 자료를 정리했다. “그냥... 멈췄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자존감이 무너졌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던 그녀에게 실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하늘이 한순간 무너져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렇게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간 날, 문 앞에서 작게 붙어 있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앞으로가 걱정이라면,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상하게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시작된 게 도약보장 패키지였다.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취업상담이 필요한 청년 등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 기반 잡케어(Job Care)로 직무역량과 능력을 진단하고,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취업계획과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심리적 안정부터 직업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과정 및 실무교육, 이력서 컨설팅과 모의 면접까지 단계별로 구성돼 있다. 최윤희 씨에게 처음 만나는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성향 분석과 적성검사를 함께하면서, 그녀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게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시시콜콜 제 얘기를 쏟아내기 바빴어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공감해 주시면서 제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직접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상담사님과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막연했던 것이 뭔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보육 외의 길도 궁금했다. 상담사의 안내로 무료 강의와 자격증 과정,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들을 접했고, 하루하루 일정표를 짝 채우며 수업을 들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실버놀이치료사 자격증을 땀과, 컴퓨터 실무와 영상 편집 수업도 수료했다. 강의 요약, 독서 노트, 들었던 강연의 인상적인 부분을 일일이 손글씨로 정리해 가며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없을 거예요. 일은 없어도 할 일은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점점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죠.”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대한다고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지만, 돌아오는 건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다. 자격이 있어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문턱에서 멈췄다. 다시 조금해졌다.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줬다. 인터넷으로 서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상담사의 조언이었다.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그때 상담사는 “너무 한 방향만 보지 마세요. 사회복지사는 아이들도 필요로 해요.”라고 말해줬다. 그 시야를 넓혀, 아동돌봄센터로 눈을 돌리게 됐다. 지금 일하는 돌봄센터는 그렇게 찾아온 자리였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상담사가 “잘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

다. 채용이 확정된 날엔 함께 기뻐했고, 근속 6개월이 되면 꽃다발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지금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도, 배움도, 아이도, 일상도 그녀만의 속도로 균형 있게 이어간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누군가 곁에 있어 줬다는 사실은 오래 남는다. “실직이라는 폭풍 속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는 이제 제 속도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어려움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음에 조용히 미소 짓는다.



물속 탐사와 작업에 효율과 안전을 더하다

수중 드론 조종사

흔히 드론 하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체를 떠올리지만, 물속을 누비며 탐사와 각종 작업에 나서는 이른바 수중 드론도 존재한다. 수중 드론 조종사는 상황과 목적에 맞춰 수중 드론을 운용함으로써 물속에서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일조한다.

글 강진우



수중 작업의 한계 극복에 앞장서다

물속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 바닷속 깊은 곳을 살펴보고 지식과 자원을 얻는 해양 탐사,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구조 활동, 선박이나 수중 구조물의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잠수 시간 및 수심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흐린 수중 시야, 갑작스러운 조류 변화, 해양 생물의 위협 등 원할한 수중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도 많다. 잠수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한다.

사람이 수면 위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잠수정(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즉 수중 드론은 사람 대신 물속으로 들어가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다양한 수중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에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 위치 파악과 수거에 수중 드론을 활용한다. 해양경찰은 선박 전복 사고 등 각종 해양 사고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중 탐색에 특화된 무인 잠수정을 운용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심해 탐사와 연구에 수중 드론을 투입 중이며, 해운사들은 선박 하부 유지 보수를 위해 수중 드론을 도입하고 있다. 수중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체들도 수중 드론 활용성 확대에 열을 올리는 상황. 덕분에 수중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수중 드론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조종술만큼 중요한 수중·정비 전문성

수중 드론 조종사는 수시로 변화하는 물속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목표로 삼은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드론 조종 실력은 기본이며, 드론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수중 지식을 두루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해양 탐사 드론을 운용한다면 바닷속 상황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꿰고 있어야 수월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수중 구조물을 유지 보수해야 한다면 해당 구조물과 보수 요령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수중 드론 조종사는 조종에 더해 수중 드론의 관리와 정비도 담당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계 설비를 다루는 데 능숙한 공학 계열의 인재를 수중 드론 조종사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가 공인 수중 드론 조종사 자격증은 아직 없지만 잠수사, 해양기술사 등 수중 과업과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자격증인 수중드론조종사, 공공안전수중드론조종사, 수중드론정비사, 해양수중드론조종사 등의 취득도 수중 드론 조종사 입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을 활용한 자율무인잠수정(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중 상황 대응력, 정밀 작업 능력 등은 사람이 조종하는 수중 드론이 월등하게 높기에, 수중 드론 조종사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처는 말없이 쌓인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보여주는 '직장 내 괴롭힘'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등장인물들이 한 번쯤은 하는 대사가 있다.
“그냥 참아야지, 다들 그러고 버티잖아.” 드라마 속 이야기는 하구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참고, 견디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글 편집실 자료출처 tvN,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나는 투명인간이야, 아무것도 하지마”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외형만 같은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자리에서만 세상을 단정 짓는지를 되묻는 작품이다. 자매가 서로의 삶을 뒤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언니가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 때문이다.

작품 속 괴롭힘의 양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거나, 복사와 문서 파쇄 같은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신적 통제를 가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상사의 폭언, 동료들의 뒷담화, 고의적 배제 등도 반복된다. 특히 언니가 동생에게 “나는 투명인간이야.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당부하는 장면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3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대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적·신체적 극한까지 인간을 몰아붙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과장된 설정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로는 언어폭력이 27.9%로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가 17.4%, 차별대우가 13.7%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드러낸다.

고용노동부, 강원학원·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괴롭힘에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5월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학원에서는 이사장 부부가 교직원에게 개인 심부름과 명절 선물 상납 등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임금 공제, 채용차별, 산업안전 조치 미이행 등 총 2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범죄인지 및 총 2억6,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사임 처리됐다.

MBC의 경우,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반복적인 비난과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가 문제로 지적됐다. 기상캐스터는 법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FD·AD·PD 등 프리랜서 25명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 근로자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연차·퇴직연금 미지급 등 6건이 적발됐으며, 범죄인지 4건, 과태료 2건(총 1,540만 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확대와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처벌 강화 조치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확대	고용형태 무관, 반복적·감정적 행위도 괴롭힘 판단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강화	실질적 지휘·감독 존재 시 '근로자'로 간주, 법적 보호 대상
비공식 위계 개선 필요성	선후배 문화, 이사장 중심 권위체계 등 개선 요구
조직문화 진단 방식 활용	내부 익명 설문조사로 은폐된 문제 실태 파악 가능
사후관리 강화 및 부처 연계	교육청·방송사와 협업하여 재발 방지 대책 이행점검 계획

01 고용노동부, 사·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총 300억 원을 선제 지원한다. 석유화학 불황의 여파를 겪는 전남 여수(45억 원), 미국 고율관세로 우려가 큰 울산(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42억 원), 화재로 일자리 불안이 커진 광주(13억 원)도 지원 대상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철강, 건설, 이차전지 등 업종별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들은 취업 지원, 고용 유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총 300억 원을 선제 지원한다. 석유화학 불황의 여파를 겪는 전남 여수(45억 원), 미국 고율관세로 우려가 큰 울산(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를

02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 확대



국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국은 16일 디지털 고용시스템 개발과 직업훈련 협력을 위한 협정서(LOI)를 체결했다. 협정서는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전문가 교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대표단은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방문해 고용서비스 운영 사례, 고용정보시스템, 직업능력개발 전략 등을 학습할 계획이다.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 노동고용부 차관보를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방한했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을 현대화하고자 한

03 NCS 리더스 클럽, NCS 활용 우수기업 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0일 「2025년 상반기 NCS 리더스 클럽」을 개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NCS는 채용, 교육, 평가 등 인사 전반에 활용돼 직원 만족도와 유연근무 확산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K-뷰티 스타트업 하이네이처(주)는 NCS 기반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문화 진단 점수를 향상시켰다. (주)와일리는 NCS 도입 후 신입사원 이직률을 0%로 낮추며 인재 적응력과 조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정부는 NCS 리더스 클럽을 중심으로 직무 중심 인사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0일 「2025년 상반기 NCS 리더스 클럽」을 개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NCS는 채용, 교육, 평가 등 인사 전반에 활용돼 직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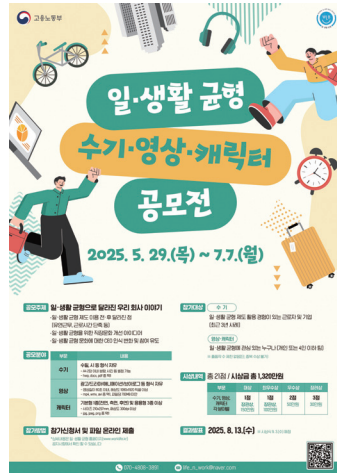
04 일·가정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



양립을 실현한 (주)텍스터크레마 손동진 대표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출근시간 유예제 등 육아 친화 정책을 운영한 (주)소프트보울 이태규 대표에게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경력단절 여성 채용 장려금 등 우수 제도를 운영한 (주)우리홈쇼핑, 서비스탑(주) 등에게 돌아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제25회 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5월 28일 기념식을 열고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원격근로와 재량근로제 등으로 일·가정

05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개최



며, 수상작은 8월 13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5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수기, 영상, 캐릭터 3개 부문이며, 특히 캐릭터 부문은 올해 처음으로 달라진 삶과 일터의 모습을 공유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문별 대상 1점(150만원) 등 총 21편을 선정하며,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응모는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가능하

06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며, 병역 의무 복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해외 일경험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해외경력 증빙이 쉬워진다. 학습기업의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 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자영업 창업자의 조기채취업수당 신청 절차는 매출 자료만으로 간소화되

07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던 한시적 제도였다. 제도 적용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반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

08 위험성평가 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선타 참여 사업장은 27.3% 감소 효과를 보였다.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83.8% 줄어드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38,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kras.kosh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2년 전보다 66.7% 감소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72.6%, 위험성평가 컨



호수에 머문 한여름의 숨결

석촌호수에서 여름나기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여름이다. 하지만 덥고, 지친다고 해서 실내에만 있다가는 싱그러운 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만의 방법으로 이 여름을 즐겨보자.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가까이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이를테면 여름이면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처럼 말이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화려한 동네 잠실이 간직한 역사

서울 잠실은 롯데월드, 롯데타워, 송리단길 등이 자리하고 있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잠실을 찾곤 한다. 지금이야 모두가 인정하는 서울의 핫한 동네지만, 잠실은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었다고 한다. 1971년, 섬이었던 이곳은 한강개발사업에 의해 메워졌고 아파트와 종합운동장이 들어섰다.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잠

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잠실'이라는 이름 역시 섬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 유래는 섬과는 연관이 없다. 과거에는 합성 모직이나 양모를 얻기 어려웠기에 누에로 실을 얻어 베를 짜기 위해 누에를 사육하던 방을 '잠실(蠶室)'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누에를 치던 '잠살'이 지금의 잠실에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잠실은 이렇듯 오랜 시간, 우리 역사와 함께 걸어온 곳이다.



석촌호수의 빛나는 여름 느끼기

잠실의 역사에서 '석촌호수'를 빼놓을 수 없다. 석촌호수가 자리한 곳은 원래 송파나루터가 있던 한강의 본류였다. 한강개발사업에 의해 불품없는 호수로 남을 뻔하던 이곳에 1981년 들어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설치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잠실호수교를 중심으로 동호와 서호로 나뉜 석촌호수는 이제 잠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로 알려져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름에는 호수를 타고 불

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더위를 식히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무려 2.5km에 달하는 호수 주변으로 여러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어서 여름 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날의 석촌호수가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야경 때문이다. 인근에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여러 빌딩이 자리한 덕분에 호수 주변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다.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일부러 저녁에 석촌호수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시원한 호수 바람 맞으며 걸어보기

석촌호수의 진가는 걸었을 때 빛을 발한다. 서호에 위치한 송파나루공원부터 시작해 동호 방향으로 걷다 보면 평화로운 풍경들을 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을 알리는 장미꽃이 가득 핀 장미원부터 여러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는 석촌호수 아뜰리에,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미디어아트,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호수교갤러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한 편의 전시

를 특별한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어서다. 그뿐인가. 걷다가 지치면 여기저기 마련된 벤치에 앉아 호수를 둥둥 떠다니는 문보트를 바라보며, '물멍'을 해도 좋고, 호수 뷰가 매력적인 어느 카페에 앉아 목을 축여도 좋다. 동호까지 걸다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잠실호수교 위로 올라와 바로 옆 송리단길로 향해보자. 빈티지 감성의 소품 가게부터 식당, 빵집, 카페까지 다채로운 숨이 가득해, 석촌호수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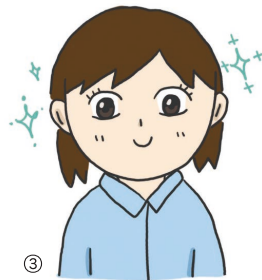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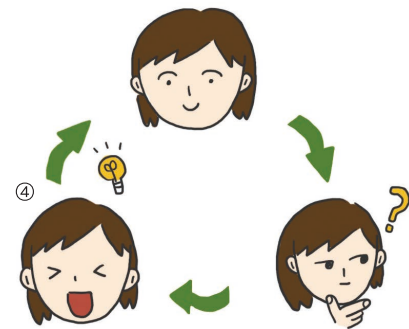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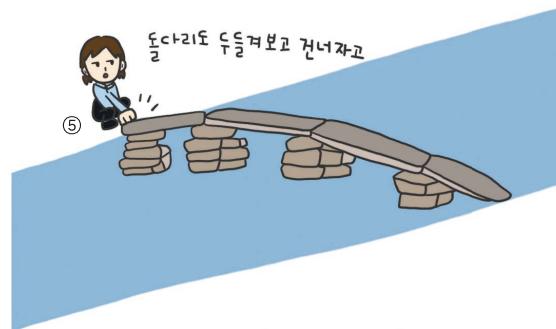
흐름에 휩쓸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살 것인지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시대에
진짜를 알아보는 귀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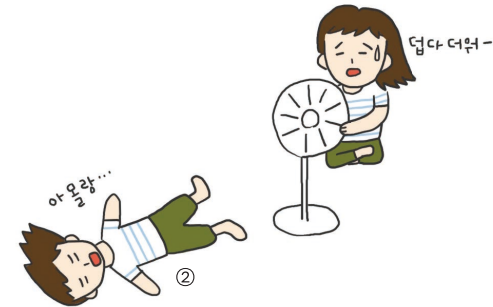


신중한 태도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 것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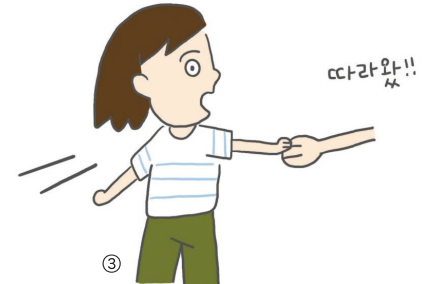
일상을 지키는 루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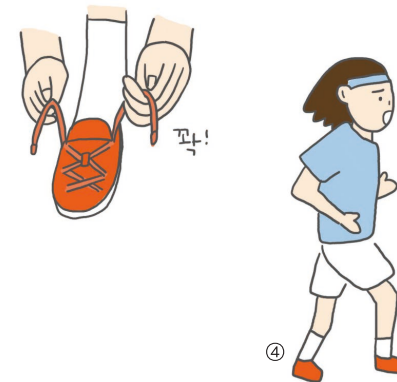
평범한 일상이 흐트러지는 시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관스레 게을러지는 계절을 지날 때.



그럴 때 다시 나를 이끌어 주는 건



내가 평소에 지켜온 루틴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아 나를 바로잡고 싶다면
스스로 지키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지켜보자.

무미건조한 키보드의 개성 넘치는 변신

기계식 키보드

천편일률적인 사무실의 상징과도 같았던 키보드가 취향 가득 담은 업무 아이템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다채로운 디자인과 타건감으로 MZ세대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계식 키보드가 유행하면서 나타난 변화상이다.

글 강진우

● 손맛과 커스터마이징의 매력적 조화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이 곧 스트레스 해소라는 MZ세대 직장인이 부쩍 많아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기계식 키보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키보드는 누르면 키가 입력되는 점점 방식에 따라 크게 멤브레인 키보드와 기계식 키보드로 나뉜다. 멤브레인 키보드는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 온 키보드다. 키 밑에 전기가 통하는 일체형 고무가 깔려 있어서 각 키를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없고, 키를 눌렀을 때 느껴지는 타건감이 묵직하고 입력 정밀도가 떨어진다.

반면 기계식 키보드는 키별로 개별 스위치가 달려 있어 키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눌렀는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스프링의 반발력 덕분에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고 입력 정밀도가 비교적 높으며, 내부 부품에 따라 각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타건감을 구현할 수 있다. 각 키를 교체할 수 있어 나만의 기계식 키보드를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특별한 손맛을 느낄 수 있고 키보드의 타건감과 외형을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MZ세대 직장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키보드의 키를 누를 때 나는 느낌을 소위 ‘축’이라고 부르는데, 기계식 키보드에는 다양한 축이 존재한다. ‘소곡소곡’ 소리가 나는 밀키축, ‘타각타각’ 소리의 코랄축, ‘도독도독’거리는 바다축 등이 대표적이다. 자신에게 맞는 축을 고른 뒤에는 키보드 스위치를 선택하는데, 다양한 모양의 키를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무게에 따라 타건감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MZ세대 직장인들은 자신의 개성이 듬뿍 담긴

키보드를 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이런 점 덕분에 커스터마이징한 기계식 키보드가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 3월 서울 세텍에서 열린 ‘제2회 서울 기계식 키보드 박람회’에는 많은 청년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전국 곳곳에는 맞춤형 기계식 키보드를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타건숍’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 기계식 키보드 입문 팁

타건숍에서 손맛 느끼기

기계식 키보드는 종류가 다양하기에 각각의 키보드를 직접 쳐 보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때문에 여러 키보드의 타건감을 맞볼 수 있는 타건숍에 방문해 직접 기계식 키보드를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청축, 갈축, 적축

기계식 키보드의 ‘축’은 크게 청축, 갈축, 적축으로 나뉜다. 청축은 타건 시 청량한 소리가 나고 마치 타자기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난다. 적축은 타건감이 부드럽고 소음과 손가락의 피로도가 낮다. 갈축은 청축보다는 소음이 적으면서도 적당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다. 일단 이 셋 중 하나를 고른 뒤 세부 축을 결정한다면 선택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사무실용은 ‘저소음’으로

기계식 키보드가 멤브레인 키보드에 비해 소음이 있는 편이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선뜻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 최근에는 타건 소음을 줄인 저소음 기계식 키보드도 다양하다.

직장인 어휘 사전 신조어 개정판 말맛·눈치맛·직장맛까지 꼭 찬 단어들

신조어는 언어의 일탈이 아닌 현실의 반영이다. 웃으며 넘기기엔 너무 정확해서 뼈 때리는 표현들. 당신도 하나쯤은 해당된다면, 이미 이 사전 속 캐릭터일지도 모른다. 직장인들의 일상과 감정을 절묘하게 포착한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말맛, 눈치맛, 직장맛이 살아 있는 신조어로, 당신의 언어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시간이다.

자료 커뮤니티 '직장내일', '싱글벙글' 등



단어가 아닌 '정서'를 압축하는 언어

회식보단 혼밥, 명함보다 이모지, 그리고 이제는 신조어로 말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는 직장인 신조어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변화하는 직장 문화와 세대 간 소통의 힌트를 제공한다.

요즘 새롭게 널리 사용되는 '헛차', '위스치개', '수시오패스'와 같은 단어들은 기존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던 애매한 상황과 미묘한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헛차(헛된 연차)'는 쉬는 날조차 일에 묶여버린 직장인의 피로감을 담았고, '수시오패스'는 잦은 수정 요청에 무감각해진 상사의 모습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신조어는 말장난이 아니라 공감 기반의 감정 언어로, "그 기분 나도 알아"를 유쾌하게 말하는 일종의 '웃픈' 코드다.

세대의 간극 VS 소통의 '공감 브릿지'

직장 내 소통은 업무 효율만큼이나 '온도'와 '톤'이 중요하다. MZ세대는 수직적 언어보다 수평적 유머와 밈(meme)을 즐기고, 신조어는 그 주요한 매개체다.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대신 "혹시 저 수시오패스예요?"라는 식의 간접화법은 갈등을 줄이고 웃음을 유발한다. 단어 자체는 낯설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맥락을 이해한다면 신조어는 세대 간 거리감을 좁히는 대화 도구가 될 수 있다. 신조어는 말보다 '맥락'에 민감한 시대의 문화적 결과물이다. 낯설다고 외면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시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헛차

연차 썼는데 애매하게 짚끔짚끔 일한 날

예시) "아, 나 완전 헛차였어." 연차를 냈지만 팀장님 호출에 자료 정리, 메일 회신까지 해버린 날. 몸은 침대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있다면, 그런 헛차가 확실하다.

위스치개

오후 3시, 소화는 다 됐고, 포만감은 남아 있지 않은 라이트한 점심을 일컫는 신조어

예시) "쌀국수요? 그거 완전 위스치개잖아요." 점심은 먹었는데 왜 자꾸 손이 간식 쪽으로 가는가.

수시오패스

수정에 대한 죄책감 따윈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은 감정도, 마감도 넘는다.

예시) 야, 또 수정사항 엄청 많이 왔어. 이 정도면 수시오패스 아니에요~

뇌동요

생각은 필요 없고 리듬감만 있으면 OK. 반복 업무에 최적화된 배경 음악을 의미

예시) "엑셀 작업할 건데 뇌동요 틀어줘요."

양지컬

아이디어 회의에서 수십 개의 안건을 내지만 정작 채택되는 건 없다.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을 꼬집은 표현
예시) "또 30개 아이디어 가져왔네. 완전 양지컬이야."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의 줄임말, 한 번 더 줄여 '알잘딱'이라고도 한다.
예시) "그 친구는 진짜 알잘딱깔센이야."

점메추

점심 메뉴 추천해달라는 말, "저녁 메뉴 추천"은 '저메추'
예시) "점메추 부탁해요~ 오늘 뭐 먹죠?"

앗짚이

메신저 답변마다 '앗'을 달고 다니는 습관성 반응. 하지만 앳짚이로 불리는 이들에게엔 자연스러운 리듬일 뿐.
예시) "앗 저는 다 좋아요~ 앳 좋아요!"

시말미

시말서 쓸 만한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
예시) "그 사람 또 지각했네. 시말미 조심해야겠다."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5년 7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객관식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3단계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 ① 자율 개선 → 현장 점검 → 엄정 감독 ② 교육 강화 → 처벌 강화 → 사후 평가
③ 긴급 구조 → 법적 제재 → 민간 위탁 ④ 예방 홍보 → 무작위 점검 → 시민 제보

단답형 제출범위. 굿파트너

근로기본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Hint!

72767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7월 20일(일)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6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김○혜(8909) 여○수(8532) 이○선(4597) 최○준(1513)
김○한(5125) 이○훈(3867) 최○훈(5905) 최○수(1981)
신○훈(4406) 이○빈(1113)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을 스캔하세요!

웹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